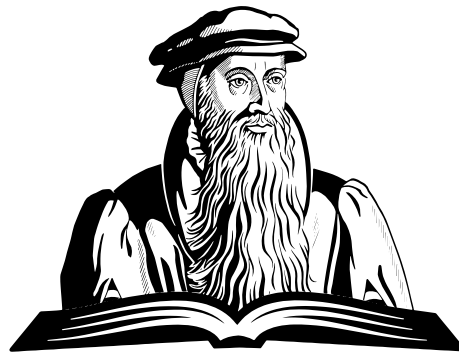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0: 포로기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0

포로기

강의 주제:

하나님의 약속은 특권을 가져다주지만, 그들은 또한 의무를 지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반항하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징계의 자비를 낳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11-12).

강의 스크립트 20

고대사회에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들에게 신문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거나 혹은 그 후 신약시대의 그리스와 로마사람으로서 신문의 머리 기사를 읽고 있다면 그 기사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저는 그 신문의 기사들이 황제들의 궁전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혹은 현재 발생한 전쟁과 외국의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투 특히 그들의 나라가 영광스럽게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그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로마제국에 복속된 새로운 땅이라는 점에 대한 간략한 기사 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나라들도 진정 지엽적인 변방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십니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나 뒤에 가서는 로마나 다른 강대국에 속한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교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역사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바벨론 같은 위대한 나라를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제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개혁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은 그들의 유배를 어떻게 연기시켰습니까? 이러한 개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포로기 동안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 포로기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도 남겨주었습니까? 포로기 동안 여전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포로기에 이르는 기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들이 앞서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던 것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역사를 약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31:20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 속한 특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며 나라들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26:27-33이나 신명기28:64-67로 가보면 이러한 언약의 저주와 위협이 포함된 언약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면 여호수아24:19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에 관한 모든 일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남 유다 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완전히 악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는 완전히 분리된 채 200년 정도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적인 경고를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북쪽의 열지파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유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북쪽 형제들에게서 교훈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는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갔고 비슷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대략 백년 정도 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이 그 전에 있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BC58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 두 나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원인은 선지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와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17:1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울레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왕과 요시아왕을 통해 진행되었던 성경적인 개혁과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포로가 되는 과정을 늦추셨습니다.

열왕기하18:3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왕도 히스기야가 받은 이와 같은 칭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그도 완전하지는 못했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가장 철저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늦추기는 했지만 포로가 될 운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의 끔찍한 죄에 대하여 보응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싼 불경건한 세상의 방식으로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위한 포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70년간 안식의 휴식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죄악된 나라는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의 축복과 언약에 대한 것 말입니다. 이 역사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의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28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 앞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3장 시작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특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에서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10:11-12은, “그들” 곧 구약의 신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전체 그 중에서도 3,4장은 현재의 불신앙과 끔찍한 결과를 거두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포로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은 그 당시만 큼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라들을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사용하십니다. 시편76:10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나 앗수르도 역시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비탄받아 마땅하고 죄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앗수르를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멸하셨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유다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한 징계로 찬란했던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로 다 모이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악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행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4:27,28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정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처리하십니다.

하지만 포로기 시대의 예언들 속에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예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 2:7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거대한 상 (image) 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난 외국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에는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마지막으로 다리가 의미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2:44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왕국의 때 곧 로마제국의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제국이 세력을 떨칠 때인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국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뒷부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기 동안에도 미래에 교회와 교회 너머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계시라고 제가 제시했던 것과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주제로 했던 강의에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땅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인 요점을 기억하시죠? 그 신학적인 요점들은 포로와 관련하여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만연한 불신앙과 배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로운 임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기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옮겨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것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규례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실재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가시적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특권의 장소를 박탈하는 출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포로기라는 예언자적 시대와 신약성경 사이의 연결성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첫째,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통해 일어난 구약의 개혁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항구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불신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부패시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와 동일한 과정을 다시 역으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시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구약기사들의 패턴들과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와 17세기의 제2종교개혁 시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 아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을 따라 만든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범했던 최악의 악한 길을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가운데 첫 네 계명인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불순종은 5-10계명을 담고 있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1장은 인과론적인 연결성에 대해 기록하는데, 첫번째 돌판을 버리면 두번째 돌판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끔찍할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죄악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보여주듯, 사람이 더 멀리 벗어날수록 그들의 삶의 방식은 더욱 더 악하고 뼈뿔어지게 되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의 성적인 타락과 살인자들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하면서 하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분이 정한 예배방식을 따르게 되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있어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율법이 들려졌고, 모든 백성들의 귀에도 율법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누우쳤고 겸비하여 졌으며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세상적인 영향력과 우상숭배를 피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도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개혁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졌습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누리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다음의 두 가지야 말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들도 포함하므로 결국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정해진 방식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출처에 대한 지식이다” 구약의 개혁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좌정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히브리서12:5-11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조금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낀다면 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질책하심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교회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여호와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떠나 죄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연결점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친구들이 바로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신세라고 하는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었고 그분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갈라디아서4장에 따르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로와 마찬가지로 신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외부인, 일시체류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거처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해 쓴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계속해서 2:11,12에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유배지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죄악된 길에 저항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쫓아다니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대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선한 것을 구하는 일에 고정해야 합니다.

시편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외침으로 남아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137:5,6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포로기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할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방 문화의 영향력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세상에서 유배자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분의 대의인 그분의 나라와 시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가 이룩한 성취에 대하여 공공미디어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팽파레는 부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야말로 중심이야기이며 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와 최근의 역사를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의 빛 아래서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신세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위대한 출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들의 구원과 귀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